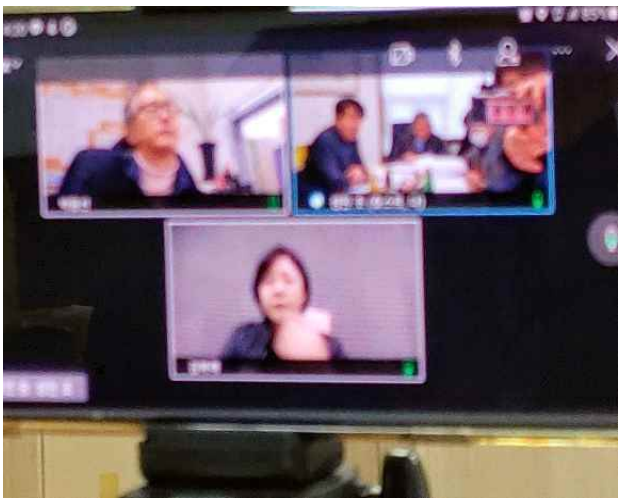
2021년 / 3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지난 2월 25일(목)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2021년 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줌 화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0년 결산과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강안 원장님과 홍성덕 부원장님, 이정욱 운영위원은 연구원 사무국에 자리했고 박용선 운영위원과 김복례 운영위원은 각자의 공간에서 화상으로나마 정말 모처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심의된 사업계획안은 3월 이사회를 최종 승인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사회 후 사업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넘겨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슬기롭게 맞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의 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 발로 쓰는 유럽 풍경 - 87

안델센의 동화세계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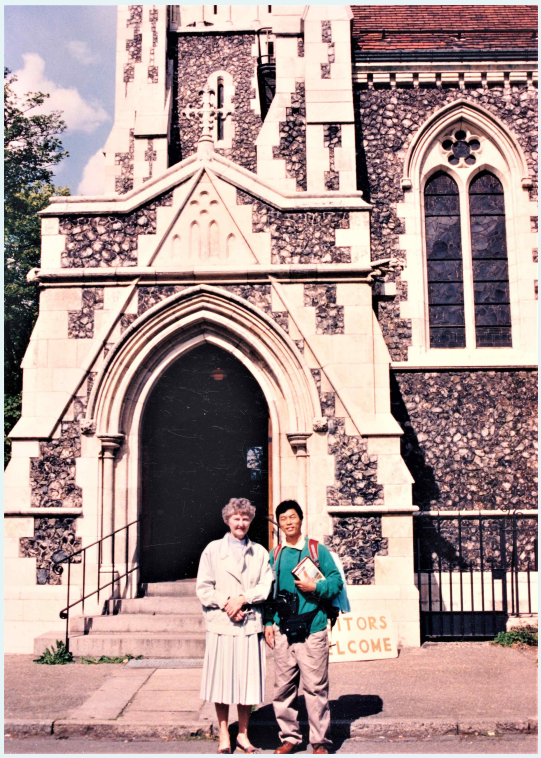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게피온 분수, 게피온 여신이 힘차게 네 마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형상이다.

안데르센 동화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아마도 인어 공주일 것이다. 나 역시 인어공주에 관심이 있던 터라 코펜하겐에 가자마자 인어공주 동상을 찾아 가기 위해 그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는 탔지만 어디에서 내리는지를 몰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앞좌석에 있던 부인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을 건넨다. 자기가 내리는 곳에 따라 내리면 인어공주 동상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겠다고 한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청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었다.

그 부인은 몇 정거장 가다가 내릴 차비를 하면서 같이 내리자고 손짓을 한다. 그 부인은 따라 내린 나에게 바로 앞의 교회를 가리키며, 자기는 이 교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자기가 근무하는 이 교회는 성 알반스 교회로써 영국의 순교자 성 알반(Saint Alban)을 기념하여 1800년도 말에 세워졌고 모든 건축 재료는 영국에서 가져왔으며, 영국의 초기 건축 양식으로 지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성 알반스 교회는 규모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영국을 떠나 덴마크에 자리 잡은 영국 성공회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때문인지 아담한 느낌과 함께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시내버스에서부터 먼저 말을 걸고 안내를 자처 해 준 친절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 부인의 친절을 여운으로 남기며 발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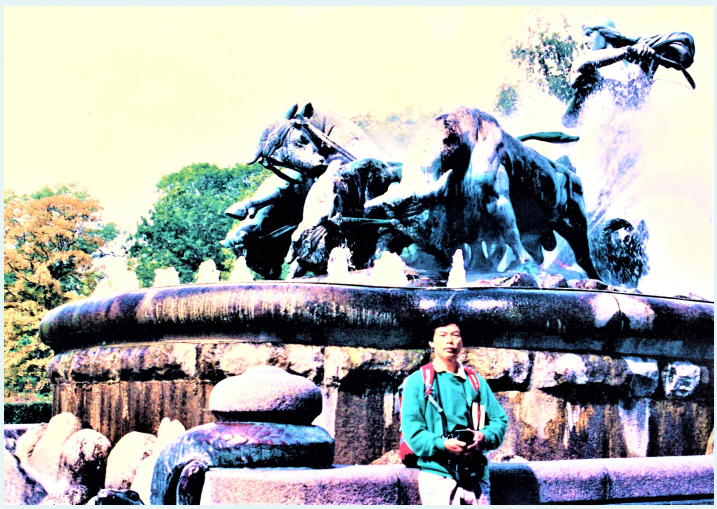
나를 친절하게 안내해준 부인과 교회 앞에서~

안데르센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 나도록 고마움을 느낀 때가 많았다고 그의 자서전에 적고 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단순한 친절에서부터 인생을 결정지을 심오한 충고로 안데르센을 돕고 있다.

「자네의 그 덜 읽은 글들을 출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 불완전하고 설익은 글로 사람들을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되네. 젊은 시인은 허영이라는 전염병을 조심해야 하네. 자기 감정이 순수한지 그리고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네. 자네는 지금 공부를 해야 할 시기이니 시를 쓰긴 쓰되 아주 가끔, 꼭 써야 할 때만 썼으면 하네. 마치 사냥꾼처럼 단어와 생각을 좇으며 모든 걸 다 시로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진정한 감정이 벅차올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생기를 얻어 마구 춤을 출 때 그때 시를 쓰게. 그리고 자연과 인생과 자네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게. 그러면 자네의 시가 될 심상이 떠오를 걸세. 〈안데르센 자서전, p. 94.〉」

안데르센이 받았던 수많은 친절과 도움이 지금도 덴마크 사회를 이루고 있기에, 모르는 그 부인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 부인이 가르쳐 준대로 인어공주 동상 있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분수가 힘차게 물을 품어내고 있다. 이 분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가장 큰 분수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게피온 분수'이다. 이 분수는 북유럽 신화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신 게피온이 황소 4마리를 몰고 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네 마리의 황소를 몰고 밭을 가는 여신은 덴마크의 건국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화에 의하면, 어느 날 스웨덴의 왕이 게피온에게 하룻밤 사이에 갈아엎을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에 게피온은 네 명의 아들을 황소로 바꾸어 밤새 밭을 갈아엎어 약속한 땅을 얻는다. 이 땅이 결국 오늘 날 덴마크 영토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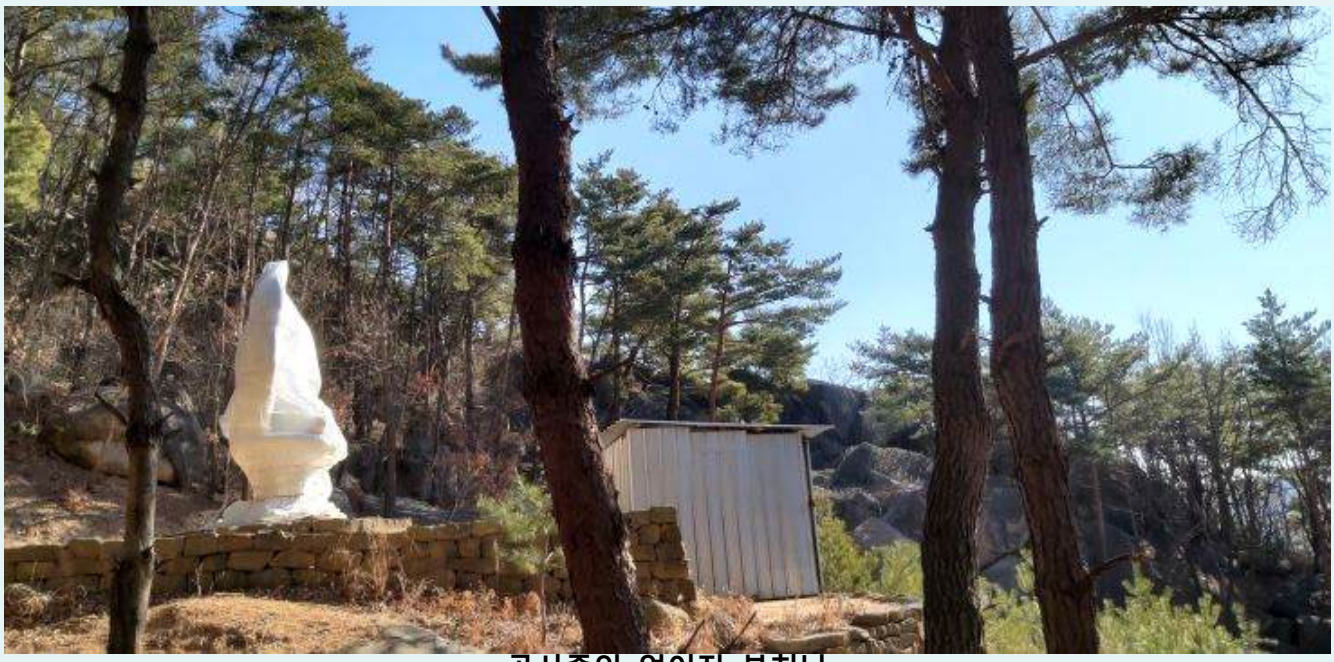
게피온 분수 앞에 선 필자

■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 – 다섯 번째 이야기

경주 남산의 남쪽 기슭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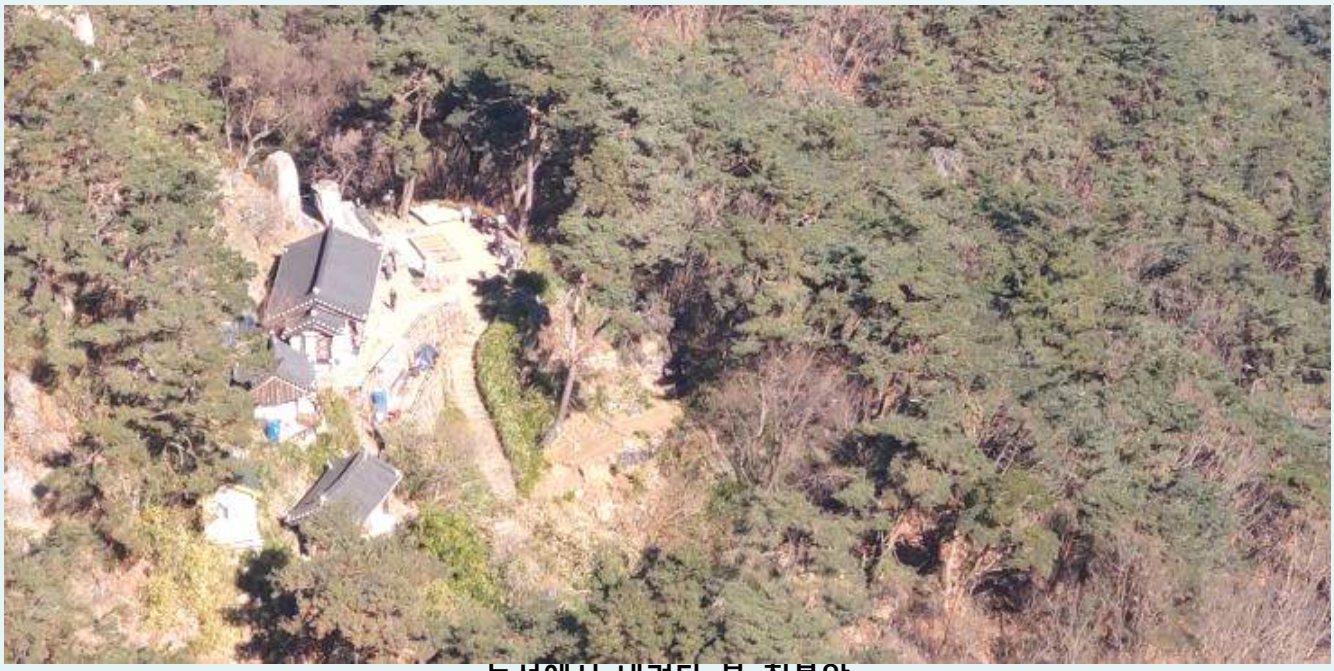
다시 남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남쪽 기슭이다. 새갓골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열암곡으로 올랐다가, 백운곡으로 내려오는 일정이다. 주차장에서 엎어진 부처님과 마애불까지는 800m 밖에 되지 않는다. 2007년에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엎어진 부처님'은 안녕하신가? 마음이 걸음 보다 앞섰다.



공사중인 엎어진 부처님

그런데 오솔길 입구에 붙은 현수막을 보니, 이곳은 보수공사 중이라서 2021년 1월 9일까지 1년간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한다. 어허, 오늘이 바로 공사의 마지막 날 아닌가? 혹시하며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더 이상의 통제는 없었다. 오솔길이 훵하게 열렸으니, 재수가 좋으면 새로 단장한 부처님을 오늘 남보다 먼저 뵐 수 있으리란 기대마저 일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로 그치고 말았으니, 현장에는 아직도 울타리가 굳게 쳐있었다. 옆에서 넘겨다보니, 마애불은 겹겹의 비닐에 싸였다. 그렇다면 엎어진 부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부질없는 눈길만 갈피를 잡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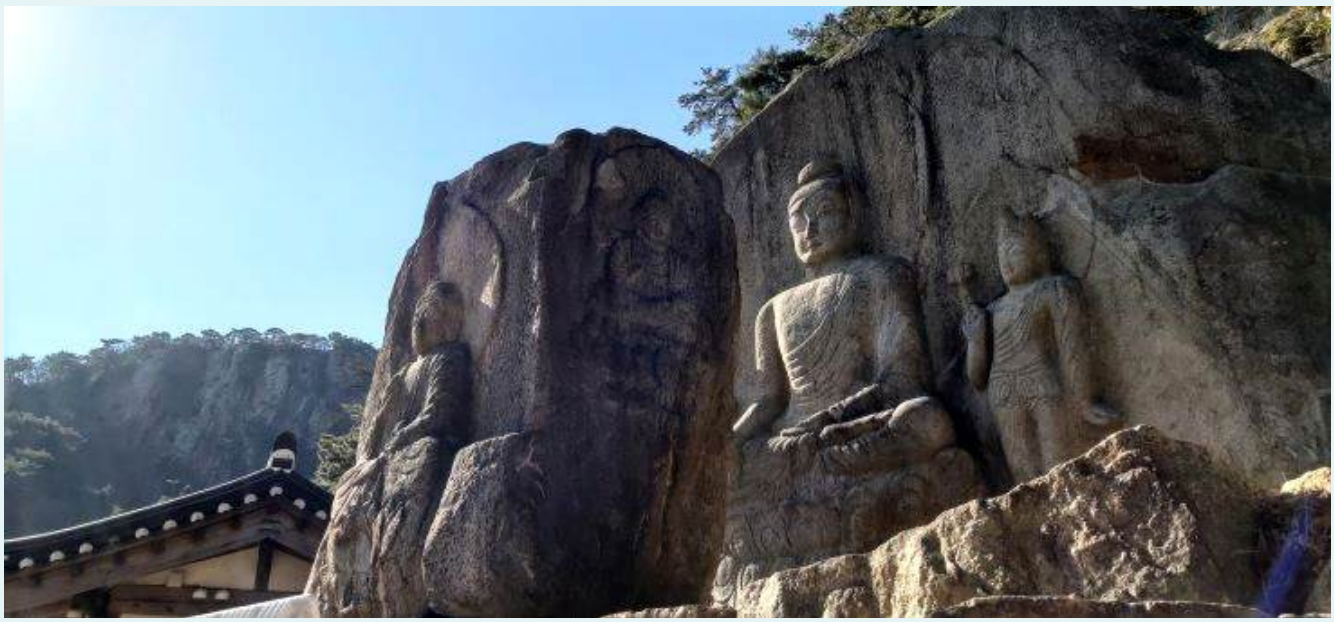
능선에서 내려다 본 칠불암

봉수대까지 숨 가쁜 경사였다. 그러나 봉수대를 지나자, 길이 평탄하고 널따랗게 펼쳐졌다. 동쪽으로 칠불암이 내려다보였다. 가벼운 걸음으로 당도한 칠불암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능선들은 곳곳이 바위투성이였다. 아니 기암괴석들의 집합소였다. 남북으로 8㎞, 동서로 4㎞ 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체구 산이 어쩌면 이렇게도 바위로만 이뤄졌단 말인가? 설악산 같은 고산준령의 풍모에 어찌 조금도 뒤지지 않는단 말인가?

커다란 탄식은 마침내 신선암 앞에서 터져 나왔다. 수십 길 낭떠러지 위에, 거대한 바위 하나를 열어젖히고 나온 부처님 한 분이 태연자약 앉아계신 것 아닌가? 구름 문양의 좌대 위에서 오른쪽 엄지발가락 하나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삼라만상의 존재 의의를 설파하시는가? 소리 없는 가르침을 들어보고자 귀를 바짝 세웠지만, 속인의 귀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시 바윗길을 더듬어 칠불암으로 내려갔다. 남산 유일의 국보로 명성 높은 삼존불과 사방불을 뵙고자 함이었다.

칠불암의 마애석불군



1930년의 일이다. 인근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봄나물을 뜯으러 왔다가 이곳의 마애불상군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옆에 세운 암자가 칠불암이란다. 뒤쪽의 암벽에는 삼존불이 정교하게 새겨졌고, 앞쪽의 네모난 바위에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한 분의 부처님을 다시 새겼다.

고도로 세련된 각도 각이라지만, 웅장한 규모에 입이 절로 벌어진다.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 지금 이곳에 이르렀는가? 탄식이 남몰래 새어나왔다.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 신의 축복이다! 목청이 터져라 크게, 크게 외치고 싶었다. 하늘은 속절없이 푸르렀고, 아래쪽 경주평야는 아득하기만 했다.

천룡사지 삼층석탑

발길을 되돌려 칠불암삼거리로 오르는 동안에도 가슴은 내내 먹먹했다. 남산은 천년만년 아름다우리라. 그리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은 빈부와 귀천의 가림 없이 누구나 저마다의 그릇에 희망과 행복을 가득가득 채우리라.

고위봉을 거쳐, 열반재에서 천룡사터로 내려가 석탑을 구경했다. 다시 백운암을 지나 침식곡석불좌상에 들른 다음, 주차장에 이르렀다. 차에 오르기 전, 남산을 돌아보았다. 지나온 궤적이 대충 내다보였다.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 산에 눕거나 엎드려 계신 부처님들이시여, 모두 일어나시라! 그대들이 일어서는 날에 남산은, 경주는, 대한민국은 찬란한 불국토로 새 세상을 열리라!

다음 주는 <경주 답사기> 여섯 번째 이야기 "경주를 찾으러"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